



정규과정 - 영상촬영기본(2018)

주제 : 디지털 캠코더 촬영 패턴

패닝 촬영 자세와 주의할 점,
패닝을 통해 인물의 행동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촬영 스킬 등을 알아봅니다.



튜터 김기복

패닝(panning)이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촬영법으로

팬 레프트(pan Left)와 팬 라이트(pan Right)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으로는 모두 보여주기 힘든 상황을 촬영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보통 패닝만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카메라 워킹과 함께 사용합니다.

패닝과 줌인을 혼용하거나, 패닝과 틸팅을 같이 사용해 **각각 피사체의 연관성을 표현**합니다.



패닝 촬영 자세와 주의할 점

패닝 촬영에서는 자세가 특히 중요합니다.

캠코더를 왼쪽에서 오른쪽(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 발끝의 방향을**

마지막 촬영 지점에 두고 허리를 이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안정감 있게 촬영해야 합니다.

마지막 지점에 발끝의 방향을 향하는 이유는

패닝을 할 때 움직임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만 촬영할 경우 흔들릴 수 있으므로

다른 카메라 워킹과 마찬가지로

허리를 이용하여 촬영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5초 정도 고정해서 촬영할 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1OZGlyDU0s>



가까이에서 패닝 촬영하기 - 인물의 행동으로 호기심 유발하기

패닝 촬영은 인물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여 보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게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현장감 있는 표현을 위해 가까이서 패닝으로 촬영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론 시청자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영상을 보게 할 목적이라면 롱 샷으로 잡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패닝으로 촬영할 때 촬영 대상이 가까이에서 촬영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서 뒤에서 줌인으로 촬영하면 흔들림이 심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 피사체 가까이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틸팅 촬영하기

틸팅(Tilting)이란 카메라 워크의 하나로,
아래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조할 부분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푸짐한 밥상에서 누가 먹는지를 강조할 경우 먼저 밥상을 보여주고
틸업(Tilt Up)하여 나중에 인물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고정 촬영만으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지만 좀더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관련성을 요구하는 영상을 표현할 때는
틸팅 같은 다양한 카메라 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점 : 한 번의 촬영에서 90도 이상 넘어가는 것을 손으로 들고
틸업 촬영을 할 경우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틸팅 촬영으로 재미있는 장면 연출하기

피사체에 따라 틸팅의 속도는 달라집니다.

고정된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빠른 패닝이나 틸팅은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움직이고 부드럽고 느리게 마무리 하세요.

하지만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여 재미있는 영상을 연출할 계획이라면

속도를 빠르게 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 같이 있을 때, 캠코더를 갑자기 위로 올려 촬영 해보세요.

당황한 친구는 열이면 열, 대부분 놀란 토끼 눈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